



유통주식수란 총 발행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뜻합니다.

주식은 발행 전 일정량 발행할 주식의 수를 결정한 다음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그러나 발행된 모든 주식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최대주주 지분에 속한 주식이라던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한 주식 (자사주) 등 발행한 주식 중 일부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주 품안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총 발행된 주식이 1억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1억주가 안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유통주식수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했는가 감지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주식수가 많다면 주식의 희소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유통주식수가 많은 주식 종목들의 경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가 변동에 따라 언제고 시장에 활발하게 유통됨에 따라 주가 상승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통주식수가 적은 주식 종목들의 경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주주 지분이 많은 주식 종목 혹은 주요 주주 지분이 높은 주식 종목의 경우 시장에 단기간 매도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 매매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유통주식수는 언제고 변화될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수치 중하나 입니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한 경우, 시장에 출회되는 주식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회사에 재직할 때 보유한 주식들을 퇴직이나 인사이동에 따라 시장에 매도하는 경우 역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유통주식수 변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경영 보고서 상 공개된 주주 지분 현황 정보와 총 발행 주식 수를 조합한 방법만으로도 유통주식수를 쉽게 산출할 수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